

이포세기 [IP世]

; IP 세상, 세상을 세움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
2011년 2월 (통권 제2호)



- 02 COVERSTORY
지적 우수성의 비밀 : '메타인자' 하라
- 04 영재 SECTION
영재에 대한 위험한 오해들
- 06 심리 SECTION
부모와 자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 08 진로 SECTION
부모 커리어코칭(CAREER COACHING) 시리즈 1
자녀를 위한 부모 커리어 코칭 시작
- 10 역량 SECTION
영재기업인의 핵심역량 1
창의적 문제해결력
- 12 센터소식
수기 공모
기초상담 실시 안내

지적 우수성의 비밀 : ‘메타인지’하라

지적 우수성은 타고난 지능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타고난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며칠 전, 한 친구로부터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단 지적인 면으로만 한정하자.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 모두 예체능 잘했던 건 아니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한 마디로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딘지 모르게 지적으로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수성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다시 물어옵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우수한 이유가 무엇이나니, 그 답은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 학생들 모두의 궁금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호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수성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타고난 능력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타고난 능력의 크기를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메모리의 용량 혹은 프로세서의 종류에 해당할 겁니다.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코어 듀오 시스템을 장착한 사람도 있는 반면, 386 체제 정도만 가진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떤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기, 특정한 것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기, 감정을 통제하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등의 고등한 정신과정이 보다 쉽게 실행되도록 선천적으로 설계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타고난 능력의 크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을 부르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코어 듀오 시스템을 가지고도 전자계산기 정도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386컴퓨터를 갖다 놓고도 슈퍼컴퓨터 못지않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타고난 능력을 활용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을 이해하고, 이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곧 우수성의 본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이정모 교수는 우수성의 본질로 ‘메타인지(meta-cognition)’ 과정을 꼽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객관화 작업을 통해 사고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보통인 학생들에게 ‘오이’, ‘채상’ 등 한국어 일반 명사를 여러 개 제시하여 이를 암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아까 암기한 단어를 생각나는 만큼 적어내는 실험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보통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단어를 기억해 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주어진 단어들을 항목별로 재분류했다고 합니다. 즉, 오이는 ‘채소류’ 중 하나로, 채상은 ‘가구’ 중 하나로, 이렇게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암기의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내 안의 또 다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독관이자 전략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재분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타고난 능력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백퍼센트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영어표현 중에 안성맞춤이라고 느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I know what I’m doing’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지적 우수성의 근원이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 바로 ‘knowing what I’m do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매사에 전략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차세대영재기업인들의 개별 특성에 대한 진단이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가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아이에게 보다 적절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i321@kipa.org / 02) 3459-2743

영재에 대한 위험한 오해들

저자가 영재성이나 영재교육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영재성은 타고 나는 것인지, 길러지는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관심은 자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적어도 그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영재성은 타고 나기도 길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전, 환경** 그 어느 것도 영재성의 단일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일정수준의 능력과 창의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일상에서의 창의성(Everyday Creativ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영재성과 이를 길러주기 위한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은 절대적인 것으로, 심하게는 사교육 열풍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사회를 바라보면 영재교육은 오랜 시간동안 **엘리트주의**라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인해 공교육에서 소외 되어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충분히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부는 것에 대해 **불평등**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영재들 또한 지원 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소수의 특수 집단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희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위험한 오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습니다. 첫째, **영재들은 언제나 학급에서 상위권이다.** 어린 시절 영재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또래에 비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항상 높은 기대가 부가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의 결점이나 문제점을 숨기고(심각한 경우 : 학습장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재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점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는 문제행동이나 우울증, 좌절감 등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영재들은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 스스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영재들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높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지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정서, 진로 및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영재들은 높은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학교 및 자신의 영역에 대한 흥미상실, 무기력증으로 인해 미성취 영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재는 좋은 점만을 지닌 부러운 존재이다**. 이는 영재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재학생들은 많은 경우에 또래에 비해 어른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악, 복장, 독서성향, 음식 등). 이러한 또래와의 차이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뛰어난 능력에 대한 시기과 질투로 인해 언어적 또는 물리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일부 영재교육 전문가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영재학생들에게서 주위력결핍장애(ADHD)가 빈번하고, 맞춤법 등 꼼꼼해야 하는 영역에서 문제를 나타내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재성 및 영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과도하게 긍정적인 시각과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 지원 또는 믿음은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재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도록 압력을 가하고 이로 인해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학부모와 교육자들은 영재성 및 영재교육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존에 지니고 있던 편견을 극복해 영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역에서 최대한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행 은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helee71@kipa.org / 02) 3459-2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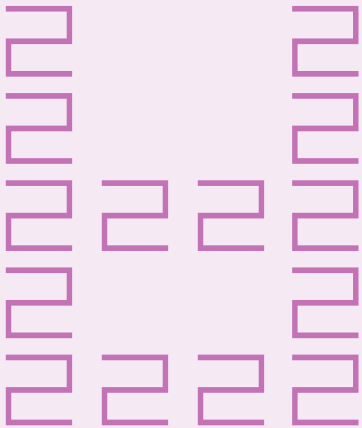
부모와 자녀간의 성격차이를 극복하기

다양성 존중의 시대에는 기회의 평등도 새롭게 정의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기회의 평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군요. 개인에게 잘 맞고, 꼭 필요한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로 다양성이 존중된 것이라고 합니다. 갖가지 라이프플랜 관련 상품들, 예컨대, 저축, 보험, 연금 등은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광고에 등장합니다. 개인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대정신인가 봅니다.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말할 때 '성격(character)'이란 용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성격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덕스러운', '완고한', '침착한', 또는 '사교적인' 행동을 여러 번 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굳어지면, 우리는 그를 '변덕스러운', '완고한', '침착한', 또는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아래 그림은 크기가 작은

리올(ㄹ)들로 이루어진 비읍(ㅂ)입니다. 이 그림을 주고 어떤 글자가 보이느냐고 물으면, 사람에 따라 'ㄹ'이라고 답하기도 하고, 'ㅂ'이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 역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차이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성격의 범위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특성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의 관점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성격은 개인마다 고유합니다. 한편, 공동체의 관점도 있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다양성'이 성립되고, 이 다양한 특성들은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약도를 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희 선생처럼 깨알같이 자세한 지도를 그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몇 개의 선들만 간단히 연결하여 여백이 많은 약도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세한 약도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백이 많은 약도를 보면 황당하고, 여백이 많은 약도를 그린 사람은 그 이상의 자세한 묘사



▶ 심리학자들이 형태지각과정(특정 형태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의 개인차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자료. <출처 : 김정오와 박창호가 1992년 「한국심리학회지 : 실험」에 게재한 논문에서 발췌>



를 요구할 때 당황합니다. 성격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개인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성격들 간의 다양성이 발생하고, 심지어 충돌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성격간의 충돌은 일상생활 중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느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허위적 합의(false consensus)라고 합니다. 시쳇말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가지는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부모님 자신의 선호에 아이를 끼워 맞추는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본인의 성격을 자녀의 성격으로 오해하거나, 자신의 취향이나 선호대로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격에 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성격에 우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나무가 소나무가 될 수는 없지만, 더 멋진 전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내 아이가 소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전나무가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성숙한 인성과 미성숙한 인성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바로 21세기에 인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바로미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사회일수록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성숙함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차세대영재기업인들에게 자신의 타고난 성격과 특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선사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부터 경험한 존중과 인정은 이후 이 아이가 사회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없이 포용하는 든든한 베이스캠프로 기능할 것입니다.



최민경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i321@kipa.org / 02) 3459-2743

자녀를 위한 부모 커리어 코칭 시작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커리어 코칭(Career Coaching)입니다. 즉 커리어 코칭이란 자신의 커리어 선택에 대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고, 커리어에 대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커리어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자 커리어 코치입니다.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커리어 코칭을 어떻게 부모가 해요? 학교나 전문기관에서 해주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나 상담가 등이 아무리 지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작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커리어 코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커리어코칭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싶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이 긴장을 해결하기 위한 커리어 코칭 첫 단계는 **부모 자신의 커리어 전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Q1 당신은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결정해 왔습니까?
- Q2 당신의 커리어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또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 Q3 당신의 부모나 다른 주변사람들이 인생이나 일에 대해 어떤 말을 해주었습니까?
- Q4 당신의 부모에게 인생이나 일에 대해 무슨 말을 듣고 싶습니까?
- Q5 당신의 조언에 대한 자녀의 반응들 중 어떤 부분이
당신 부모의 조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기억나게 합니까?
- Q6 당신 부모의 부모 역할과 양육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Q7 현재 당신은 커리어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와 상의하고 있습니까?
- Q8 당신은 커리어 목표를 향해 작지만 구체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 : David. H (2004), Career coaching your kids >



이 첫 단계가 중요하지 않고 번거롭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경험했던 방식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 커리어에 대한 생각과 경험이 부모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 행동이나 말, 표정 등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일이나 삶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한다면 그 자녀는 일이란 힘들고 생계를 위해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반면 부모님이 만족스러워한다면 자녀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English, 1996)에서 자신의 일에 행복해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일에 대해 가치롭게 생각하고, 행복해 하며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를 지지해줍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초는 결국 부모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의 커리어 코칭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님 자신의 현재까지 커리어와 커리어에 대한 부모역할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유효현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hhyyoo@kipa.org / 02) 3459-2746

창의적 문제해결력



영재기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란 과제해결 과정 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기에 문제를 해결·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영재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렌줄리(Renzulli) 교수도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창의성, 과제집착력’으로 구성된 세 고리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영재가 아닐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능과 함께 창의성이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사회적으로 성공한 영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길포드(Guilford, 1956)는 ‘지능구조이론(structure of intellect: SI)’에서 확산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사고가 창의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 중에서 확산적 사고 뿐 만 아니라 수렴적 사고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에 맞게 자세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정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성에 있어서 ‘얼마나 창의적인가?’의 관점 보다는 ‘어떻게 창의적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창의성은 인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창의성의 유형에 대한 고려, 창의성이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창의성의 발현 단계는 문제의 발견 → 아이디어의 생성 → 계획 수립 → 실행 등의 단계에서 행동적인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창의성이 어떠한 우수한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창의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호기심, 가상의 상황을 즐기고 추상의 상을 마음 속에서 자기만의 상으로 그려보려는 상상력, 주어진 과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의 창의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자기확신성, 외부적인 보상에 의해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과제 자체를 해결함으로써 오는 기쁨 때문에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자발적으로 수행하려는 내재적 동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문제상황이나 주제에 대해 주어진 시간 안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유창성, 문제에 다양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다양한 범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며, 다양한 견해로 문제를 보는 융통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독창성, 자신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가다듬어 구체화시키는 정교성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라도 능동적이며,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지속력, 환경적 방해가 있더라도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는 과제집중력의 행동특성이 나타납니다.

과제지속력과 과제집중력은 렌줄리가 제시한 과제집착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특성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한지요?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여 부모님을 당황하게 하거나, 어떠한 일에 너무 집중하여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녀 행동특성들이 이상하기 보다는 미래 영재기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기쁘시겠지요?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특성이 나타나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여 잔소리하시기 전에, 잘 갖추어진 자녀의 역량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그 능력이 없어지지 않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윤조 전문위원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yo3283@kipa.org / 02) 3459-2744

센 터 소 식**수기 공모**

앞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뉴스레터가 되고자 합니다. 앞세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다면 언제든지 차세대영재기업센터로 보내주시시오. 부모님의 경우, '나만의 자녀양육법', '상담 체험담', 교육생의 경우,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체험기'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주제의 글도 환영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 모 자 격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및 학부모, 앞세 독자 여러분
응 모 기 간	연중 모집
주 제	자유주제(제한없음)
분 량	A4 용지 반페이지
접 수 처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뉴스레터 담당자 최민경 전문위원 전화 : 02) 3459-2743, 이메일 : i321@kipa.org

**차세대영재기업인 2기 교육생 대상****기초상담 실시 안내**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에서는 2011년 3월부터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별상담을 통해 교육생과 전문위원이 일대일로 만나 성격, 진로, 학업, 생활 전반에 걸쳐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서울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시행될 이 개별상담에 대해 2기 교육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 청 기 간	권역별로 시행되며 구체적 일자는 향후 개별 메일로 공지
신 청 방 법	개별 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신청서를 작성 후 화신
상 담 내 용	기질 및 성격검사와 진로발달검사에 대한 개별 해석 및 활용법 스트레스검사 및 셀리그만 장점검사 실시 및 해석 다양한 영역(심리, 교육, 진로, 영재성 등)에 대한 개별상담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상담계획 >>>**